



12년

전주한지 수출 물고... 세계화 첫걸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음 12월 22일) 제3437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문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견 청취

전북자치도-지방시대위
'자치도민 의견 듣다' 행사

특별자치·특화발전 등
자치도 순항 5대 전략 소개

도민 염원 반영, 더 특별한
전북 지방시대 초석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도 지방시대·초광역개발 전략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염원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앙·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개발 전략계획 보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특구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5대 전략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자치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또한, 위원회 중점과제로 '4+3 초광역개발전략'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여건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장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전북 기업, 도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초광역개발 전략 계획과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글로벌 생명경계도시 조성 전략을 소개했다. 끝으로, 심보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권근상 전북대 교수, 전대성 전주대 교수, 박기홍 프레시안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특구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에서

행계회 수립방향에 대한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글로벌 생명경계도시 조성 전략을 소개했다. 끝으로, 심보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권근상 전북대 교수, 전대성 전주대 교수, 박기홍 프레시안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특구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에서

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 4대특구에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참석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해지기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민과 특례 발굴 함께 추진... 전북자치도, '특례발굴실' 운영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에 오픈... 이달부터 특례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2월부터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앞서 도민들의 다양한 특

례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개설하게 됐다.

특례 발굴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특례발굴실' 메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특례 아이디어

를 제안하면 된다.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한다.

도는 접수된 특례에 대해 20일간 특례 실효성 및 타당성 등 검토기간을 거쳐 특례발굴 여부 및 반영상황 등을

공개 답변한다. 향후 이러한 특례들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정을 운영하게 된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https://policy.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서 교육감, 공약사업 '순항'

작년 12월 말 이행률 평균 53.5%... 모든 분야 초과 달성
미래 50.3%·안전 67.9%·자치 53.8%·협력 67.9% 등

서거석 교육감(사진)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3

년 12월 말 기준 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53.5%로 집계됐다. 이는 6개 분야 모두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서 교육감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50.3%, 책임 42.7%, 안전 67.9%, 자치 53.8%, 협력 67.9%, 공동체 46.1%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175개 공약이행 확인지표 중 완료 165개, 일부추진 5개, 추진시기 미도래 5개로 부진 지표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운영, 도

교육청 재구조화, 학교 업무 기준안 정립,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식생활관 환경 개선,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운영 등이 있다.

또 교실혁명(수업혁신), 전북미래학교 운영,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학생해의연수 등 61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수확체험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추진중이다.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1조 260억원(전체 임기 소요예산 대비 34.5%)을 확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나아가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위원장 최홍규)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공약 이행 현황을 심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예수병원, 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전담전문의 1인당 1억 국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에서 전주 예수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12월 서류심사, 1월 8일 현장평가와 17일 종합평가를 거쳐 30일 도내 소재한 전주 예수병원을 1순위로 최종 선정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정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김재훈 기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전주예수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12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정읍아산병원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등을 연내 설치한다. /김재훈 기자

정읍 서히스타힐스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부담은 내리GO↓
행복은 올리GO↑

정읍 서히스타힐스

토지 100% 확보! 평당 900만원대, 707세대 대단지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바꿀 PREMIUM 6

- 01 KTX 정읍역, 버스터미널, 정읍 IC 등 빠르게 누리는 쾌속 교통
- 02 정읍남초, 호남중고, 정읍제일고 등 도보통학 안심학교
- 03 내장산, 초산 등을 가까이 누리는 쾌적 예코 조망 예코 프리미엄
- 04 정읍시스포츠타운, 정읍시장 등 윈윈 스텝 인프라
- 05 정읍내 최대 주차 대수를 자랑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 06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서히스타힐스 프리미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라이프

고품격 커뮤니티 · 정읍시스포츠타운

- 1 새로운 명품 공동주택이 주는 최첨단 스카이라운지
- 2 입주전부터 24시간 홈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라운지바
- 3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입주후 전용민트내 책상공간 작은도서관
- 4 활력을 선사하는 다량운동시설을 갖춘 공간 휘트니스센터
- 5 이웃가정엔 언제나 골프컨설팅을 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 실내골프연습장

2월2일 GRAND OPEN 59㎡, 84㎡, 120㎡ 총 707세대 문의 063)533-1600